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및 은퇴한 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소수 인종 미래 지도자를 육성합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헌금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pcusa.org/peace-global
에서 신용카드로



91999 번에
CHRISTMASJOY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pcusa.org/christmasjoy
에서



12136-22-346
Cover: Communion by Debby Hudson; Minerals by Orfeas Green

하나님, 저희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은사를 가진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단, 하나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본 헌금의 50%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전,현직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2007년 은퇴한 목사인 벤 프랭클린 윗필드는 2021년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벤과 그의 부인 헬렌은 주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와배슈 노회와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은 ‘긴급 지원금’과 ‘집에서 요양하는 은퇴자를 위한 거주보조금’(매달 지급)을 통해서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전에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벤은 회복 중이며, 집 밖에서 과외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사람들을 돕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장로교가 얼마나 고유한지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벤이 목사로 섬겼던 시골 교회에서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 헬렌 윗필드



본 헌금의 50%는

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

앨라배마 주 터스컬루사의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카일리 톰슨은 할머니처럼 대학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들이면서도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작지만 서로 매우 가까운 스틸만 칼리지는 톰슨의 전 세계였습니다. 교수들은 그녀가 공부를 계속하고 가끔은 렌트비도 낼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톰슨은 스틸만 대학에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총장 펠로우십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돈은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며 그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돕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그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원으로 인해 그 실들은 굵은 줄, 즉 재정 지원의 생명줄이 됩니다.”

— 카일리 톰슨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씩 힘을 보태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